

북한군사정책 특징 연구★

김성우*

요 약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Study on Military Policy of North Korea

Kim, Sung Woo*

ABSTRACT

The North Korean regime, Kim Jungun's foreign policy is changed frequently. And their military policy has no gravity.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 Now they hav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ese activities redound a great threat in Korean peninsula. There are a no possibilities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For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we should mak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himself through effective sanctions. Now China should effort to control North Korea. To reduce the threat we should coordinate th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US.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North Korea military activities to analyze "military policies."

Key words : The North Korean regime, military policy, nuclear weapon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strategic interests of China and US,

접수일(2016년 4월 30일), 수정일(1차:2016년 5월 20일),
계재확정일(2016년 5월 30일)

*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북한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갑자기 사망하자 김정일은 3대 권력을 세습했다. 국제사회의 거둬진 경고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는 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도발이 정권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국제적인 고립은 깊어지고 경제난이 더해지면서 체제의 존속 자체를 흔들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보유해도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옛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한 것이 아니다.¹⁾

북한은 그동안 핵을 고도화하고 미사일의 발사 거리를 늘려왔다. 북한이 핵무기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균형추는 기울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중국 특사가 미사일 발사를 말리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는데도 비웃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도입은 물론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김정은 체제의 군사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북한의 군사력

2.1. 지상군

지상군은 4개 야전군급 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2개 포병군단을 포함한 총 20개 군단관 특수전 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 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80개 보병사단/여단, 30여 개 포병여단, 15개 전차여단, 24개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여단 등 총 170여 개 사/여단이다.²⁾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10여개 군단, 60여 개 사단/여단을 전진 배치 시켜 언제라도 부대배치의 조정 없이 기습 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방에 4개 군단, 중부 및 평양지역에 8개 군단, 후방지역에 8개 군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기계화군단은 평원선 이남지역에 1개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및 2개의 포병군단이 배치되어있다.

군단부터 여단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기계화보병 및 전차부대들은 주요 공격 축선상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단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장하고 아군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중심기동 작전부대로서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병부대는 견고한 갱도진지에서 중심깊은 지원사격이 가능하며, 화포의 자주화로 기동성 있는 화력지원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방사포에 의한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도하공병은 수륙양용차량과 조립식 부교장비를 운용하여 병력과 장비를 포함한 부대의 강습도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약10만여 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지휘 및 통신시설 파괴, 병참선 차단, 비행장 등 주요시설 타격, 요인 암살 등으로 우리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해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와 16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투함정 중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의 수상전투함은 대부분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40여 척의 유도탄정은 사거리 46km의 대함 STYX 미사일 2~4기를 장착하여 아군의 대형함정에 대한 유도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한 해군력 역시 북한이 우세한 분야와 남한이 우세한 분야가 각각 다른데 북한의 해군 장비를 보면 북한은 바다에서도 기습 공격형, 혹은 게릴라 전쟁 모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밀한 기습 공격에 유리한 잠수함의 숫자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소형 잠수함은 비록 그 규모는 대단히 작지만 533mm 어뢰를 두 발 장착하고 대규모 군함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그 능력은 막강하다.³⁾

2.3. 공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중앙 통제하에 3개의 전투/폭격기 비행사단, 2개의 지원기 비행사단 및 1개의 훈련비행사단을 포함 총 6개 비행사단과 1개의 헬기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기 전력구성은 MIG-15/17, IL-28 등 구형 전투/폭격기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IG-19/21이 주력기종으로서 양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MIG-23/29 및 SU-25 등 신예 전투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기 40여 대와 러시아로부터 MI-8 헬기 여러 대를 구입했다. 단계적인 항공산업 육성 추진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MIG-29 신예 전투기를 조립 생산한 바 있다. 한국 공군은 현재 490대의 각종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공군은 현재 620대의 각종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 당시 북한 공군이 590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공군기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구형 전투기들을 퇴역시킨 결과 2007년과 비교할 경우 약 50대 정도 수적인 감소가 있었다. 물론 북한 공군에는 한국군의 F-15에 버금갈 수 있는 최신예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공군이

현대전에서 아예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한 공군은 결코 아니다. 우선 북한은 남한이 보유하지 못한 폭격기를 80대 보유하고 있다. IL-28(혹은 H-5)의 구형이기는 하지만 대량 파괴 무기를 탑재하고 폭격을 가해올 경우, 한국은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폭탄을 장착할 경우 구형 폭격기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Military Balance지는 IL-28을 전략무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1년 11월 초순, 북한은 IL-28 폭격기에서 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단행하기도 했을 정도다.⁴⁾

2.4. 예비전력

북한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라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초부터 4개 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인민을 무장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소집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14세부터 60세까지 전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48여만 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5~30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의 구성은 전투 동원대상인 교도대가 173여만 명(남자 :17세~45세, 여자 :17~30세), 민방위대 성격의 로농적위대가 414여만명(46~60세의 남자 위주), 고등중학교(4~6학년)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가 118만여 명(14~16세)으로 추정된다.

동원체제면에서 보면, 인민무력부가 직접 통제하는 교도대는 부대단위로 즉각 동원 및 전투투입이 가능하며, 당민방위부가 통제하는 붉은 청년근위대와 로농적위대도 당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내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특히 주민의 거주 이전과 직장 배치 및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예비병력은 상시 동원이 가능한 상태다.

2.5. 핵무기 및 미사일

북한은 구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

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축적해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했고, 1980년에는 5MW급 연구로(제2원자로) 건설에 착공했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영을 시작했고, 1989년에는 태전에 200MW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했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고폭실험을 실시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Pu) 추출능력을 고려해볼 때 한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해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경수로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원자로 운전기록의 제출,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은 완료했다.

중국 고위급 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량 추정치가 이제껏 미국이 내놓은 추정치를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내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충분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중국 핵 전문가들이 미국 핵 전문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후 발표한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이 핵탄두 20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급 우라늄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산량을 2배까지 늘릴 수도 있다고 한다.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최근에 내놓은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핵폭탄 10기에서 16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무수단) 발사에 이어 23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쏘면서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24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 무수단 발사와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 기념 SLBM 도발에 이어 5월 초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분석이다.⁵⁾

북한이 화학·생물무기와 함께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생산·보유하는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은 유사시 작전·전술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를 이용하여 남한의 수도권을 포함한 전·후방의 주요 도시 및 전략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전략인 단기 속전속결을 실현하려는 것이다.⁶⁾

3. 북한군의 전략

3.1. 군사전략

군사정책이 군사력의 건설을 위한 노선과 방침이라면,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응용기술이다.⁷⁾

이러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인 공산주의 전쟁관과 김일성의 만주 항일투쟁의 경험, 그리고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한 전략적 교훈들이 기반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상이한 체제간의 세계대전, 제국주의 국가 간의 전쟁, 민족해방전쟁, 국내전, 발전도상국간의 전쟁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 내에 있는 주한미군을 제국주의 군대라 보고 이들과 싸우는 전쟁을 한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해방전쟁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내부지향적 국수주의적 연합으로 볼 수 있다.⁸⁾

또한 김일성의 만주항일투쟁 경험에서는 기습 전략

과 사상무장의 중요성을 익혔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에게도 이어져 “우리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은 정치사상적 우월성에 있으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대오의 동지적인 단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습 전략의 경우는 1932년에서 1940년까지 만주에서 일본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면서 소규모의 부대로 적을 공격했을 때 쓰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군사전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정규전으로서 한국전쟁의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3차 전원회의에서 몇 가지 성과를 나열한 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미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예비부대와 준비사업들이 미비했다. 둘째, 북한군이 신생군대라 위기시에 조직성이 약해진다는 계산을 못 했다. 셋째, 부대의 규율성이 약하다. 넷째, 적들의 유생역량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적들이 분산, 또는 도망해서 새로 반격을 가하도록 허용했다. 다섯째, 우수한 공군, 해군, 포병대와 싸울 수 있는 전술이 부족했다. 특히 적들의 공습 속에서 산지전과 야간전투를 잘해내지 못했다. 여섯째, 적 후방에서의 유격전쟁을 훌륭히 전개하지 못했다. 일곱째, 후방 공급사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여덟째, 부대 내에서 정치공작과 사업이 고도로 전개되지 못했다. 끝으로 지휘관들의 통솔력이 부족하고 자의적인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그 후의 북한 군대가 어떠한 형태로 보완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북한 군대는 첫째, 정치·사상적으로 수령(김일성-김정일)과 당에 충성하도록 정신무장이 강조되며 이를 수행·감독하기 위하여 군대 내에 당조직을 파견했다. 둘째,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최소한 미국 군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속전속결전략을 갖춘다. 셋째, 전쟁의 성격을 ‘민족해방 전쟁’으로 부각시켜 남한 내에서 불만세력들이 유격전쟁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초반전에 남한 내 깊숙이 잠입하여 파괴와 살상을 수행한다. 넷째, 적의 유생역량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잠재역량(인

적, 물적)을 파괴하며 후퇴 시 동반하지 못할 역량은 철저히 살상·파괴한다, 다섯째, 원활한 후방 공급 사업을 위해 군 시설 및 군수산업시설을 지하화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4대 군사노선에 압축되어 있으며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는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3.2. 전략의 특징

북한 군사전략은 전쟁환경으로서 ‘3대 혁명역량’의 구성과 전쟁시의 총력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기동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3.2.1. 3대 혁명역량의 조성

북한에서 3대 혁명역량의 조성은 196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와 1965년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에 나와 있다. 3대 혁명역량의 구성에 대해서 최근 김정일은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적인 혁명 전략으로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3대 혁명역량이란 북한 내의 사회주의역량(정치, 경제, 군사)강화와 남한의 혁명역량(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지하당 건설) 강화, 그리고 국제혁명역량(미제국주의 반대세력)과의 단결강화를 의미한다.

북한 내 사회주의역량 강화란 북한 정권(당과 정부) 유지와 자체 방어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남한에 혁명역량을 육성, 지원하여 적당한 시기에 민족해방을 내세워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즉 ‘혁명기지’가 되는 것이다. 남한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에서 제일 먼저 타도할 대상은 ‘미제국주의’이며, 그 다음으로 ‘미제’에 추종하는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노동자, 농민을 근간으로 청년학생을 비롯하여 민족자본가, 진보적 인텔리 등이 지하당을 조직, 확대하여 결정적 시기에 북한을 도와 혁명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끝으로 국제혁명역량 강화란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 반식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 비동맹 세력의 지원을 획득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3대 혁명역량론이 평상시의 전략이라면 총력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기동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은 유사시의 전략이다

3.2.2. 총력전

남북한의 전쟁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정신력이 총동원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는 아직도 남북한의 대립이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 죽고 죽이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남북한의 군사력, 경제력, 정신력이 총동원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한반도의 전쟁은 남한이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이 바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됨으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고, 북한이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고 일본이 사회주의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므로 미국, 일본이 반대한다. 이는 자동적으로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이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중국, 소련이 북한을 지원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군은 남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전쟁의 성격을 지녔다. 북한이 중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수용하면서도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제의하였다.⁹⁾

현재도 북한은 중국과 긴밀한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소련 붕괴 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도 현재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으며 유사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 따라 일본이 후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일 3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2의 한국전쟁이 또다시 국제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한의 공히 가국의 국제적 협력을 얻기 위한 외교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전략은 총력전의 특징을 갖는다.

3.2.3.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김일성은 만주항일무장투쟁의 경험과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을 수립했다. 1950년 12월 한국전쟁 중 김일성은 한 회의에서

“적 후방에 유격전쟁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공군이 약하고 기동성이 약한 조건하에서 적의 기동성을 파괴하여 적을 분산 격멸하며 적의 참모부와 후방을 습격하여 적 후방에서 제2전선을 조직함으로써 적의 퇴로를 절단하며 적의 공포와 당황을 초래케 하는 것”이라고 유격전쟁의 목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산과 강 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지형조건을 잘 리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잘 하고 대부대작전과 소부대작전, 정규전과 유격전을 옹계 배합하면 비록 최신군사기술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 밝혔다.

이러한 김일성 전략은 1972년 4월 19일자 “로동신문”의 “항일 혁명투쟁의 탁월한 전략 정술 혁명무력 건설의 위대한 강령적 문헌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 출판에 즈음해서”에서 그 같은 내용을 엿볼 수 있다.

수령께서는 대부대 작전, 소부대 작전을 밀접히 결합하여 유격전쟁 경험과 현대적 군사기술을 배합하고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결합하여 유격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배합하여 전 인민적 항쟁을 조직 전개할 데 대한 방침 등 적을 전략, 전술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탁월한 방침들을 창조했다. 대부대 작전과 소부대 작전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집중과 분산, 신속한 기동을 능숙히 실현하여 적을 타격하고 소멸할 데 대한 유격대의 전술적 원칙에 전적으로 맞으며 유격대로 하여금 언제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타승할 수 있게 하는 현명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다.

유격전법과 현대전법을 배합하고 유격대의 활동과 전인민적 항쟁을 결합하는 것은 상비 무력을 핵심으로 전체 인민을 하나의 전투대로 꾸려 거족적인 투쟁역량을 마련하고 대규모적인 정규작전과 영활한 유격전을 배합하여 적들을 도처에서 공격하여 소멸하여 조국 땅을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게 하는 탁월한 전략, 전술적 방침이다.

북한이 이러한 비정규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에 입각해 있음은 군대 구성과 편제, 장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인력동원에 있어서 정규군뿐만 아니라 정보병부대, 특수전여단은 남한에 침투하는 특공부대

이며, 장비에 있어서는 AN-2기와 공기부양정, 다발경 화기 등을 다량 보유함으로써 유격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상의 전략과 북한의 군사력을 접목시켜볼 때 북한은 다음과 같은 배합전력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전면적인 공격명령 이전에 남한 내 지하조직의 봉기와 파괴, 특수전부대의 해양(공기부양정), 공중(AN-2기), 땅굴을 통한 남한 내 깊숙한 침투와 테러 활동, 공격명령과 동시 포병부대의 포격과 중거리 미사일 발사, 전차, 함대, 항공기를 통한 정규군의 진격 등이다. 이는 전방과 후방의 전방위적인 전성형성과 기자전과 산악전, 야간전이 병합되는 종합전쟁의 성격을 띠게 됨을 의미한다.

3.2.4. 기동기습전략

기동기습전략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적의 의표를 찌러 그 균형을 와해시키는 전략으로 선제권을 장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적이 예상할 수 없는 시간, 장소, 방법으로 타격을 가하여 적에게 대응할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성공요건이다.

현대전쟁에서 기동기습전략의 대표적 사례는 1967년의 '6일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거대한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전격적인 기습공격에 의해 이집트와 요르단의 군대를 꺾고 승리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5일 아침을 기해 이집트의 비행장을 기습, 폭격하여 제공권을 장악하고 파죽지세로 기동기습공격을 감행,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 요르단 방면에서는 동에루살렘과 웨스트 뱅크를, 나아가 골란 고원을 공격함으로써 시리아의 요새를 파괴했다. 이러한 기동기습전략을 통해 이스라엘은 전쟁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전쟁을 지켜보면서 1967년 6월 28일 아랍국가들에 대한 무상 군가원조를 제의했다.

북한도 1950년 한국전쟁 때 기동기습전략을 가지고 성공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은 240여 대의 기동력 있는 탱크를 몰고 들어와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김일성은 정규전에 있어서 무장을 경량화 함으로써 군사력에 속도를 부여할 수

있고 기습공격은 원자탄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선제기습에 의해 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대전에서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면 반격의 힘을 완전히 잃거나 역량을 재수습한다 해도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북한군은 기동기습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군사기지가 휴전선 부근에 집중되어 있고 많은 특전병력을 육성하며, 기습공격장비인 전차, 항공기, 미사일 등을 대폭 증강,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동기습전략을 엿볼 수 있다.

3.2.5. 속전속결전략

현대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속전속결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북한에서 속전속결전략이 중요시되는 것은 전쟁잠재력의 측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 불리하며 남북한 전쟁의 성격상 미국, 일본이 남한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신속히 장악해 인질화하며 남한의 군대가 타격을 수습해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정치적으로 초기에 거둔 군사적 성과를 신속히 확보(예를 들면 서울의 점령)해놓고 그 유리한 전략전 상황을 바탕으로 협상을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기타의 남한 우방국들은 대량파괴와 살상이 야기될 북한과의 충돌은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측에서 보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 된다. 즉, 속전속결전략은 군사적인 완전승리(남한전체의 점령)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분승리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속전속결전이 현대전에서 가능해지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군사장비 때문이다. 지난날에 있어서도 속전속결이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기동장비의 등장은 속전속결을 더욱 가능하게 했다. 국방연구원(KIDA) 김태우 박사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생물·화학무기는 세계 3위 수준”이라며 “세계 각국이 생물·화학무기를 폐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머지않은 장래에 생물·화학무기 분야에서 세계1위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¹¹⁾

4. 결 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정책 방향이나 강조점이 급격히 변화하는 널뛰기와 같은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자주와 존엄, 평화에 대한 언급에서 평화보다 자주와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하다가 불과 몇 달만에 목숨보다 귀하다전 자주·존엄은 생략하고 평화만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나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회담의 개최 표명이나 비핵화까지도 논의할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제의로 변화하였다.¹²⁾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대외 군사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는 평화’와 선군에 기반한 ‘자주와 존엄’이 대비되면서 시기와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는 점이다. 이는 경제와 내부 개혁이라는 명제와 선군과 자주, 핵무력의 전력화라는 양개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상충하여 갈등을 야기시키고 정책목표들이 상호 충돌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한국의 질적 우세를 상쇄하는 다른 방법은 군사력의채용 방식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이다. 북한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한국의 우위를 상쇄하려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질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은 최근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 무기력했다. 북한은 특이한 전략 전술은 물론 질적으로 열세인 부분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를 통해 상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연합뉴스, 2016년 2월 9일자
- 2) 국방부, 국방백서 2014, p.214
- 3)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2. p.184.
- 4) 이춘근, 위의 책, p.189

- 5) 조선일보, 2016. 4. 25일자 3면 기사
- 6)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Statement: US-DPRK Bilateral Discussions,” February 29, 2012. p.254.
- 7) 민병천, “주체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 『안보연구』 (제20호)(서울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1), p. 236.
- 8) Solingen, Etel,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Restrai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2, Fall, 1994, pp.139-140.
- 9) 이우탁, “북 리용호 화려한 발언, 미신중행보, 연합뉴스, 2012. 3. 13
- 10) 민병천, 위의 책, pp.240-241.
- 11) 미래한국신문, 2012년 7월 6일자
- 12) Chinese Leader DPRK Leader’s Envoy, “Xinhua, May 23, 2013, ”President Reaffirms Denuclearization on Korea Peninsula“, Xinhua May 24, 2013.

[저자소개]



김 성 우 (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현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mail : tiger@tu.ac.kr